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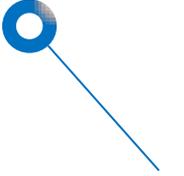
대학생 창업실태와 실전창업 개선방안

2016. 5. 26.

고 혁 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본부장)

대학생 창업실태와 실전창업 개선방안

C O N T E N T S

- 
- 01 대학 창업활성화 필요성
 - 02 대학생 창업실태
 - 03 개선방안

01 필요성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혁신경제 ⇒ 창조경제

- ✓ 미래학자들은 (기술혁신 ⇒ 자동화 ⇒ 일자리 감소)될 것이라는 일관된 견해 제시
- ✓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개념인 창조경제가 보다 바람직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큰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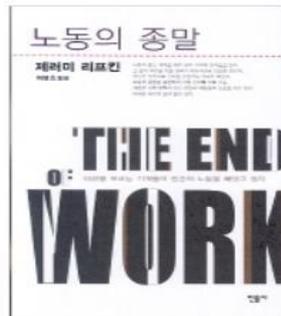
- 1 텔레마케터(99)
24시간 로봇으로 대체
- 2 세무대리인(98.7)
세무업무 자동화
- 3 금융권 대출 담당(98.3)
로보 어드바이저 활용
- 4 은행 창구 직원(98.3)
ATM으로 대체
- 5 스포츠 심판(98.3)
컴퓨터 심판제 도입
- 6 구매·조달직(98)
인터넷 주문 증가
- 7 제품 포장·운반직(98)
로봇·기계가 대체
- 8 공장기계 운용직(97.9)
기계 자동화로 대체
- 9 신용분석가(97.9)
데이터 분석 자동화
- 10 택시·화물차 기사(97.8)
자율주행차 등장
- 11 패션모델(97.6)
로봇이 대체

2013년 영국옥스퍼드대학의 연구

2025년 미국에서는 자동화로 인해 2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로봇 대체 현상으로 인해 총 9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일자리보존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창조적이며 사회적인 기술의 습득이 필요

영국 중앙은행 할데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봇 도입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8천만명과 1천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2015년 11월 30일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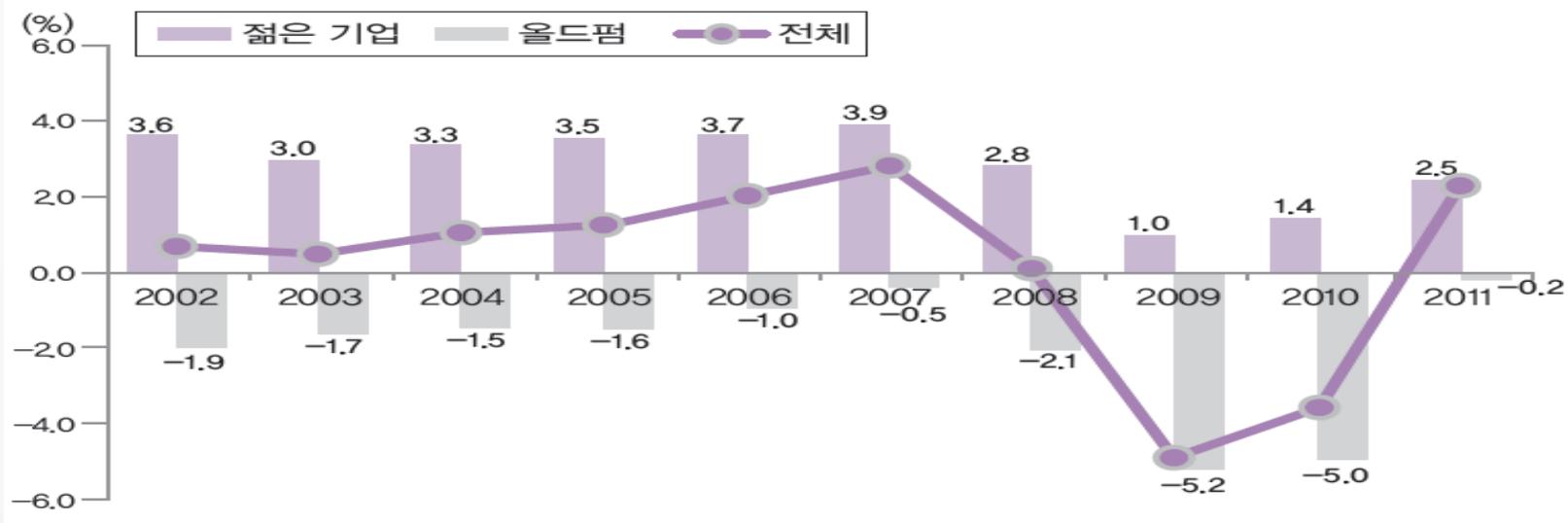


리프킨의 저서 '노동의 종말'

첨단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혁신 등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주장(Science Times, 2013. 7. 22)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기업의 성장지원 ⇒ 창업기업 육성

OECD(2013)에 따르면 2002년~2011년간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젊은 기업)이 신규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 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 **10년 평균 젊은기업: +2.87% / 올드펌: -2.07**



- 출처: 자료: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OECD, 2013), 일자리 창출의 엔진 젊은 기업(경기개발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기업의 성장지원 ⇒ 창업기업 육성

- ✓ 대기업주도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방향 전환
- ✓ 성장의 유일한 대안 ⇒ 창업을 국가전략으로 채택



- 2009년 기업가정신을 국가혁신전략의 핵심과제로 채택
- 2011년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



- 창업국가, 후츠파정신
- 대학생 60~70%가 창업을 희망
- 나스닥상장 이스라엘기업 70개, 일본 7개



- “대중 창업, 만중 혁신”(2015)
- 유니콘 기업 15개
- 매일 1만개, 2014년 기준 365만개



- 창업을 통한 제2 대영제국 건설
- 런던 북동부 슬럼가 ⇒ 테크시티
- 2,000개 기업 입주, 투자규모 2조



- 베를린을 유럽의 창업수도로
- 1992년 실업률 40% ⇒ IT창업허브 (2014년 투자유치 11억 달러)
- 창업자 나이 31세, 이민자 비율 48%



- 청년실업돌파구를 창업으로
- 하나의 큰 노키아 ⇒ 10개의 작은 노키아
- 알토대학 중심, 슈퍼셀, 로비오 등



- 칠리콘밸리 조성
- 글로벌 스타트업 신메카



- 중남미 창업거점화
- 국가창업원 신설(2013)



-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 초/중/고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세계주요대학은 Entrepreneurial University로 변화 중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대학 운영에 있어 기업가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구 및 운영의 방향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수 및 학생의 기업가활동을 장려하는 대학

(Henry Etzkowitz, 2011, Burton Clark, 2001)



프랭클린 W.올린 공과대학



대학의 역할이 (기존기업의 인력공급) →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환이 필요

"내가 제2 저커버그" 美대학생 年40만명이 창업 공부

오윤희 기자

- 세계 대학 스타트업 지원 열기
美, 관련 프로그램만 5000여개... 주요大, 창업지원 단지 개설 붐
日도쿄대 스타트업 5년새 2배로... 中칭화대·베이징대도 적극 지원
-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
"요즘 美대학생들 입학할 때부터 세상 바꿀 아이디어 현실화 꿈꿔"

창업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글로벌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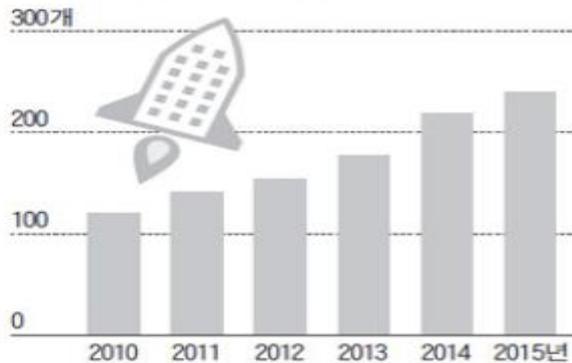
단위: 달러

※()안은 창업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업 수

1위. 스탠퍼드	(378개)	35억
2. UC 버클리	(336)	24억
3. MIT	(300)	24억
4. 인도 델리 공과대	(264)	31억
5. 하버드	(253)	32억
6. 펜실베이니아	(244)	21억
7. 코넬	(212)	19억
8. 미시간	(176)	11억
9. 텔아비브	(169)	12억
10. 텍사스	(150)	12억달러

자료: 데이터서비스업체 피처북

도쿄대 산학협력 벤처기업 수



도쿄대 교수나 학생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은 작년 8월 기준 240여개로 5년 전인 2010년(120여개)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중 16개 기업이 기업 공개를 했고, 이들의 시가총액만 총 80억달러(약 9조4800억원)에 달한다고 WSJ는 전했다

[출처] 조선닷컴(2016.1.06)

창업교육 확산 → 창업인재 양성 → 준비된 인재의 창업도전 → 일자리 창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기업의 CEO는 대부분 대학교 때 창업을 경험



UBER



airb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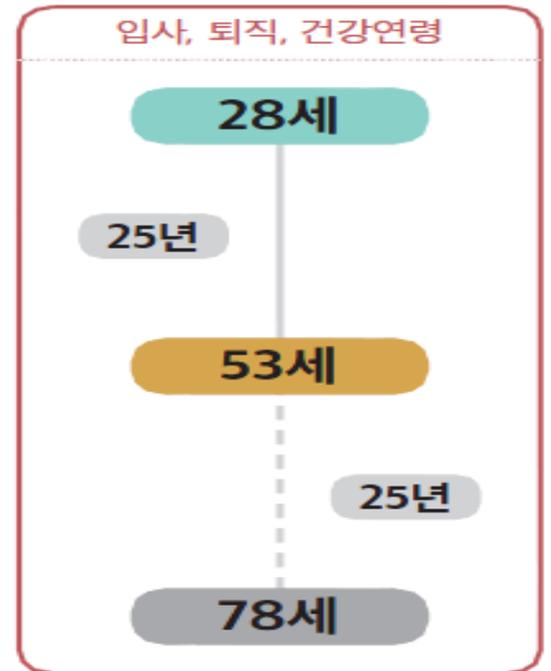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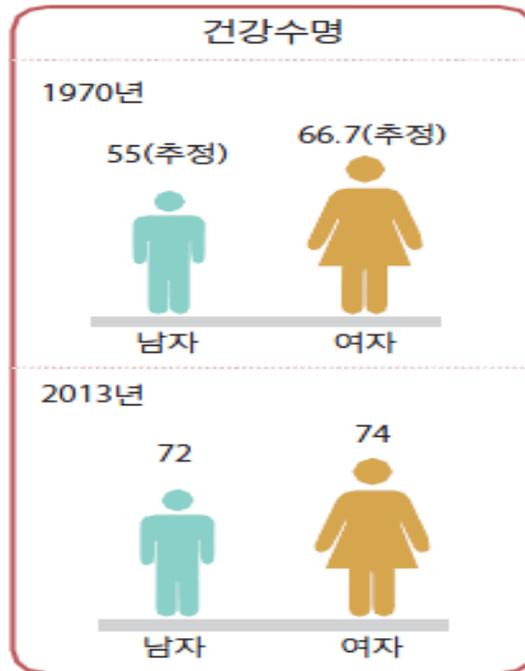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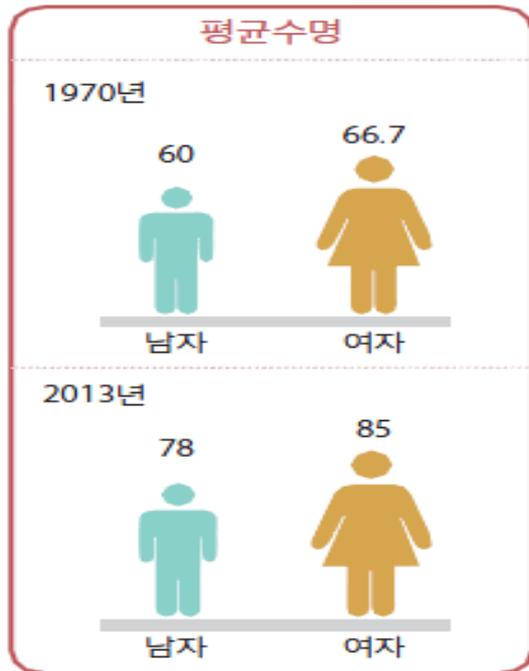
티켓몬스터



- 스탠포드대 구글 2% 지분 보유
상장 후 3,500억원

생애전주기 관점에서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언젠가 만나야 하는 일

당신은 몇 세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당신은 몇 세에 퇴직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당신은 퇴직 후 몇 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A	B	C



[그림 1-1] 한국 국민의 평균 입사·퇴직·건강연령

02 대학 창업실태

현 정부 들어 대학 창업교육은 양적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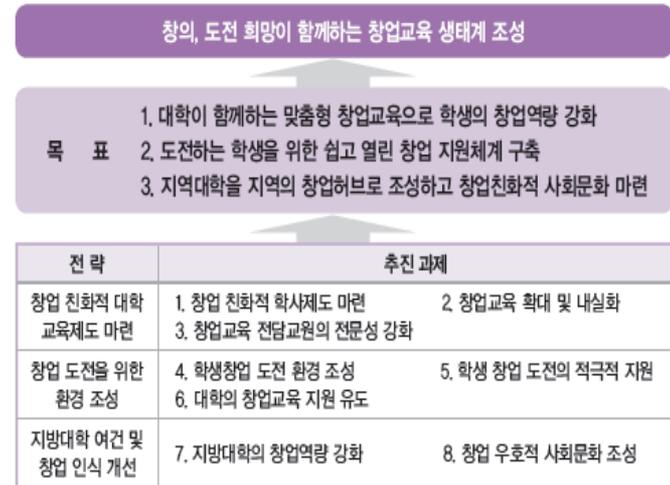
2013년 9월 5일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교육부, 미래부, 중기청) 발표 이후 대학의 창업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증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3.9.5

:: 비전과 전략, 8대 추진 과제

【그림 22】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과 목표)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학이 함께하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 강화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 지원체계 구축 ▲지역대학을 지역의 창업 허브로 조성하고 창업 친화적 사회문화 마련을 3대 목표로 내세움.

창업교육 현황: 창업강좌

- 온라인 강좌의 증가(강좌 수: 258.1%, 이수학생 수 123.5%)가 특징적이며, 상대적으로 대학원은 44개 강좌에 562명의 증가에 그침
 - 창업 강좌 수(전체) : 2,039개 ⇒ 3,842개
 - 이수학생 수(전체) : 104,835명 ⇒ 190,761명
 - 이수학생 수(온라인) : 5,420명 ⇒ 12,112명
 - 이수학생 수(대학원) : 1,547명 ⇒ 2,109명
-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전문대의 증가세가 높게 나타남(이수학생 수 기준)
 - 전문대 : 25,023명 ⇒ 73,883명, 195.3%
 - 4년제 대학 : 78,265명 ⇒ 114,769명, 46.6%
- 수도권 대학의 증가율(142.1%)이 가장 높았고, 동남권 대학의 증가율(47.6%)이 낮음(이수학생 수 기준)
- 소규모 대학의 증가율(178.2.1%)이 높았고, 대규모 대학의 증가율(41.5%)이 낮음(이수학생 수 기준, 대규모는 10,000명 이상, 소규모는 5,000명 이하)
- 재정지원사업 수혜대학의 증가율은 21.5%인 반면, 비참여 대학의 증가율은 181.3%(LINC, 창업선도대학, 기업가정신센터)

창업교육 현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창업연계전공) 창업학과는 15개 대학에 19개 학과가 운영, 창업연계전공은 34개 대학에서 45개 전공이 운영 중. 11개 대학에서 창업관련 전공을 개설 준비 중
 - 창업연계전공 개설 확산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의 과제
- (창업휴학제) '15년 기준 46개 전문대학, 87개 4년제 대학에서 운영 중, 167명이 신청
- (창업실습) '15년 기준 18개 전문대학, 38개 4년제 대학에서 창업실습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제도를 통해 3,390명의 학생이 대체학점을 취득
- (창업현장실습) '15년 기준 20개 전문대학, 50개 4년제 대학에서 창업현장실습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제도를 통해 356명의 학생이 대체학점을 취득
- (창업학점 교류제) '15년 기준 8개 전문대학, 39개 4년제 대학에서 328개 강좌를 개설
- (창업장학금) '15년 기준 5개 전문대학, 30개 4년제 대학에서 운영. 4년제 대학의 경우 2,222명에게 209,924만원을 지원(평균 94.5만원)
- (창업특기생) '15년 7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13년 이후 115명이 입학

창업교육 현황: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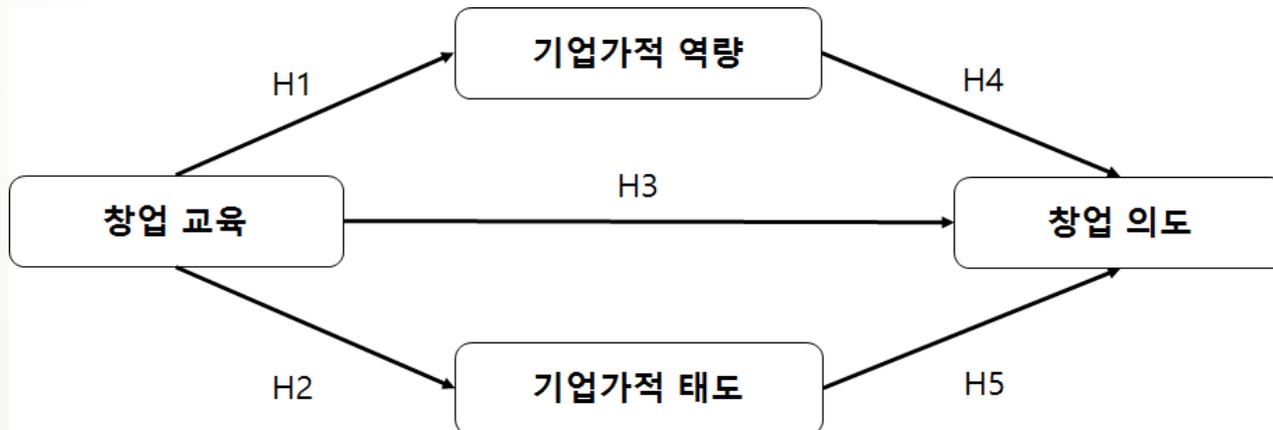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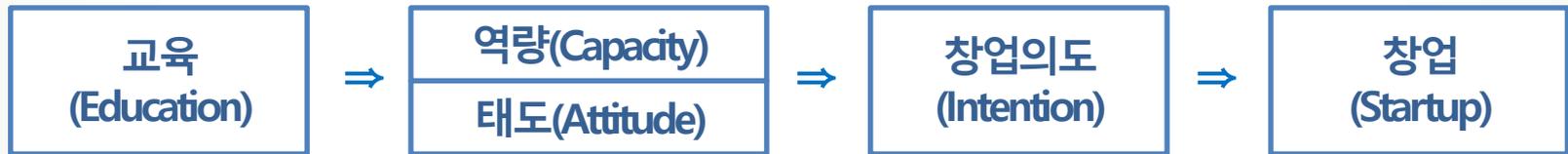
- (창업동아리) ('13년) 1,854개 16,321명 ⇒ ('15년) 3,296개, 24,960명
- (창업교육전담조직) '15년 말 기준 271개 대학이 창업교육전담조직을 운영 중
 - 창업교육센터: 129개, 창업보육센터: 33개, 창업지원단: 47개, 취창업지원센터: 37개, 기타: 25개
- (창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15년 말 33개 대학에서 운영 중
 - 지원건수: 479건, 지원금액 179억원, 창업연계건수: 21건
- 1인 창업자의 취업자 인정 기준 변경(2016년부터 적용)

구분	현행 기준	개정(안)	산출방법
금액기준 개선	연간 사업 총 수입금 1,200만원 이상	1,185,966원(월평균 매출액)×5.1개월(창업활동기간) ≈605만원	국세DB연계
기술형창업 인정기준 신설	없음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고,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업자로 인정 ①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②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한 경우(본선 진출자 이상) ③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한 경우 ④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자료연계

창업교육의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모형

● 창업교육 효과측정 모형: ECAIS

- Krueger and Carsrud(1993)와 Kolvereid(1996b)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업교육효과는 entrepreneurial education → attitude → Intention → behavior의 단계로 나타나며, Linan et al(2011)외 다수의 논문에서 창업교육은 창업의도 이외에도 역량(capacity)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창업교육의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변수

- 독립변수: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및 기타활동
- 매개변수: 역량과 태도
 - 역량: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네트워킹역량, 협동심, 지식과 기술에 관한 역량(6개 항목)
 - 태도: Linan et al(2011)에 따르면 태도는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규범으로 구분(10개 항목)
- 종속변수: Linan et al(2011)과 GEM(2014)을 참조하여 기업가적 의도를 측정(5개 항목)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나의 주변에는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창업도 훌륭한 진로(혹은 경력)의 하나라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우리사회는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주변의 사람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나는 졸업 후 창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나는 창업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나는 가까운 시일 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창업교육의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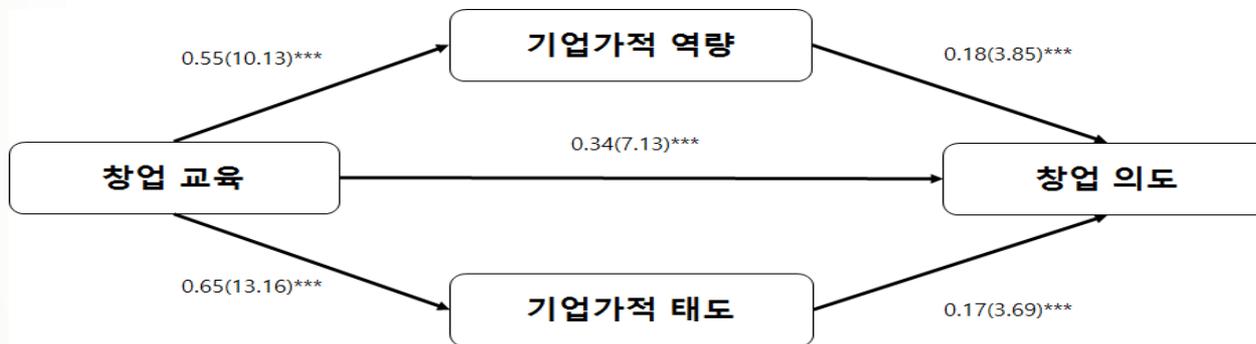
● 표본조사 방법

- 2016년 1월에 교육부 공문으로 전체 대학에 발송한 후 한국연구재단 담당자가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회수를 독려
- 각 대학의 학생에게 무작위적으로 30명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수거(1,721명)

구분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성	988	57.6
	여성	727	42.4
지역별	서울	193	11.2
	수도권	320	18.6
	충청	369	21.5
	전라	266	15.5
	경상	521	30.3
	강원/제주	50	2.9
	계열별	인문 사회계열	465
공학계열	663	38.8	
자연 과학계열	218	12.7	
예체능계열	210	12.3	
의약학계열	91	5.3	
기타	63	3.7	
유형별	전문대학	753	43.8
	대학	966	56.2

창업교육의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주요결과

- 창업교육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
-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0.34)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간접적인 효과(0.26)도 존재
- 대학 창업교육 확산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을 키우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



가 설	경 로	경로계수	t-값	p값	검증 결과
1	창업교육 ⇒ 기업가적 역량	0,55	10.13	.000	채택
2	창업교육 ⇒ 기업가적 태도	0.65	13.16	,000	채택
3	창업교육 ⇒ 창업의도	0,34	7.13	.000	채택
4	기업가적 역량 ⇒ 창업의도	0.18	3.85	.000	채택
5	기업가적 태도 ⇒ 창업의도	0,17	3.69	.000	채택

문제점: 창업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88개

학생창업기업 배출대학 수

304개 ⇒ 247개

학생창업기업 수(2013년 ⇒ 2014년)

0.58명

대학 당 학생창업기업 수

0.11%

창업자수 / 창업강좌 이수학생

0.66%

창업자수 / 창업동아리 참여학생

72개

교원 창업기업 수

?

대학원 창업기업 수, 창업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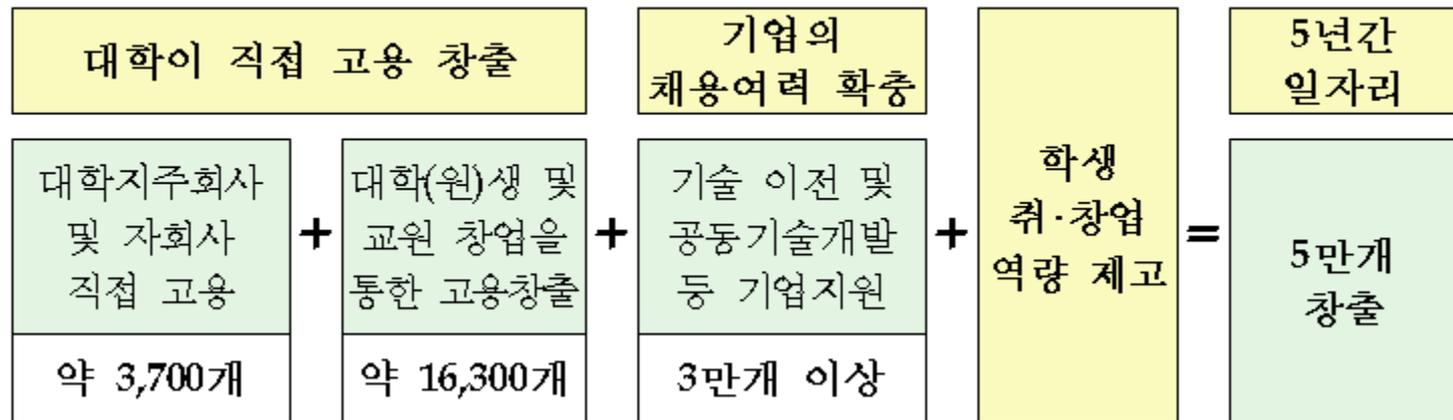
03 개선방안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 발표: 핵심은 창업

“기업 연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산학협력 5개년('16~'20) 기본계획」 발표
 - 대학-기업이 협력, 향후 5년간 일자리 5만개* 이상 창출 기대
- * 대학지주회사(3,700개)+창업(16,300개)+기업채용여력 확충(3만개 이상)

<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



대학생 창업 활성화 방안

● 창업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사회문화 확산

- 창업선진국의 경우 창업실패조차 자산으로 인정하고 취업 시 우대하여 창업실패에 대한 기회 비용 적음

- 실리콘밸리 기업의 평균 창업 횟수는 2.7회

<매경 이코노미 2016년 3월 14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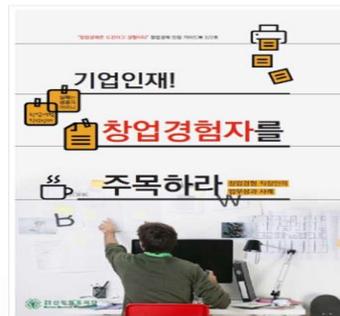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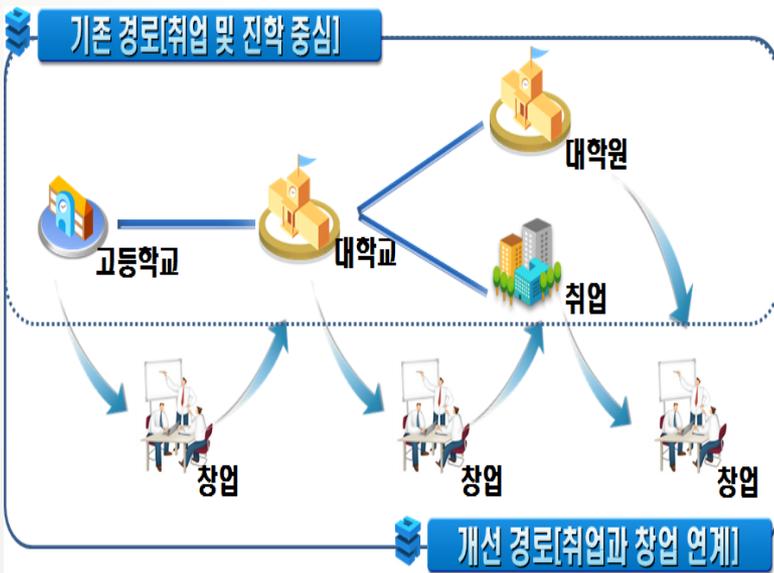
3.경력 같은 신입이 대세

지난해 SK플래닛에 입사한 김동영 씨의 경우 1년간 '사람을 위한 하이패스'라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몰두한 경험을 발표해 취업문을 뚫었다. 근거리무선통신(RFID)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던 김 씨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독학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땀다고. 김 씨는 "특허 출원을 한 경험, 또 사업에 실패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솔직하게 풀어낸 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SK그룹의 채용 프로그램인 '바이킹 챌린지' 얘기다.

SK는 신규 채용 인제 일부를 오디션 방식을 통해 뽑아오고 있다. 5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으로 색다른 경험과 이력을 가진 구직자가 많이 참여하는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뽑힌 지원자는 SK그룹 각 계열사에서 두 달간 인턴십 과정을 거친 후 임원면접을 통과하면 정식 신입사원으로 선발된다.

이렇듯 기업은 경험이 많아 실무에 바로 투입해도 금방 적응할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추세다. SK 외에도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스타트업 창업 경험자나 발명·특허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다. 한화 인사담당자는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창업을 해본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대학생 창업 활성화 방안

● 실전창업 교육 및 제도 강화

- 창업연계 캡스톤디자인 확대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강화(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특기생제도)

●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도전자금 지원

• 창업지원사업의 대학생 창업지원 트랙 운영

- 최근 교육부와 중기청 협업으로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의 20%는 학생 창업기업으로 선정하도록 유도

• 대학생 창업 시 대학 기술지주회사 투자 유도

- 학생 창업기업의 경우 자회사 규정 20% ⇒ 5%로 완화

• 대학 창업펀드 조성

- 석박사 대학(원)생, 교원 등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출신 선배 기업가, 동문, 대학적립금 등으로 조성하고, 펀드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모태펀드 출자를 추진 중.

창업에 가장 적합한 석/박사 인력에 대한 창업교육 현황파악 조차 안됨

- 산학협력전반에 관하여 대학원은 사각지대로, 석/박사 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학위논문 을 기술이전 및 창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 기술이전 및 창업으로 학위 논문 대체 트랙

● 지도학생 창업 시 지도교수 업적평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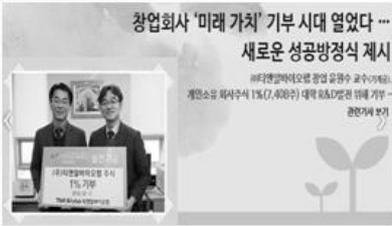
- SCI 단독 기준 한편 업적평가 점수 부여 및 SCI 논문 대체 인정

● 대학원 창업 가이드라인 제정

- 공동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대학원생 창업 시 기술에 대한 대학 및 교수와의 권리관계 모호. 특히 창업 시 교수의 과도한 지분 요구에 어려움을 호소
- 학생(대학원생)들이 대학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 시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보유기술 활용 창업매뉴얼" 제작(기술이전료, 지분투자비율, 소유권 등)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

교원창업 우수사례



-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의료 부품 제작
- 본교 기계공학과 교수(고용 18명)
- 55억 투자유치 완료 및 50억 추가 진행 중(기업가치 200억 이상)
- 회사 지분 1% 산학협력단 기부(평가액 4억원 상당)

● 사전적 시장기회 탐색을 통한 BM 및 사업설계

- UNESCO Netexplo Award(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KAIST 조병진 교수 사례 : "기업운영에서 '기술'의 힘은 20%로 자본의 힘, 경영의 힘, 시장성속도 등이 더 큰 영향력. 개발자의 기술에 대한 애착 한계.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 매칭 관건. VC투자시 CEO, CFO, CTO구성을 가장 먼저 관찰"

● 창업은 마켓타이밍이 중요한 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등)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창업연구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논문을 쓰지 않아도, 기술이전 및 창업을 통해 승진이 가능하도록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마련(창업 휴겸직 포함)

● 외국인 유학생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확대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초기부터 글로벌화 전략이 요구

- 창업 초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고(중소기업청, 2013), 실제 창업기업 중 해외 진출 비중도 1.5%에 불과(국제무역연구원, 2015)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유롭게 창업/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필요

- 외국인 유학생은 8만 5천명 수준(2014), 체계화된 지원부재로 불만 팽배
- 외국인 유학생 44.8%가 창업에 관심(창업진흥원, 2011)
- 외국인유학생은 현지에 강점 ⇒ 수출증대 ⇒ 일자리창출 ⇒ 국내정주 ⇒ 인구증가

2010년도 Fortune 500대 기업의 40% 이상이 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에 의해 설립

- 세르게이 브린 6살 때 러시아서 이민, 스티브잡스는 이민 2세대, 앨런머스크 이민 1세대
- 미국 실리콘밸리 경제활동의 45%가, 석사학위자의 35%가 이민자 / 독일 베를린의 경우도 40%가 이민자
- 스타트업 비자에 대한 혁신적 개선이 필요

대학생 창업실태와 실전창업 개선방안

2016. 5. 26.

고 혁 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감사합니다.